

2017 동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충청남도 논산시
- 희망지역아동센터



2018. 1

작년 여름에 다녀오고 이번에 두 번째로 다녀오는 희망지역아동센터이다. 저번 이화봉사단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이번에 팀장이 되어 진행했다는 것이다. 처음 팀장을 맡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서툴게 이화봉사단을 이끌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은 팀원들 덕분인 것 같다. 팀원들은 모두 각자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팀원 서로서로를 챙겨줬기 때문에 이렇게 잘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아이들은 여름에 비해 조금 더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새로 들어온 아이들도 있었지만 기존의 멤버들이 여전히 센터에서 활기차게 반겨줬기 때문에 더욱 반가웠다. 아이들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고 또 다시 와줬다는 것만으로도 신이 나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다른 팀에 비해 아이들이 많다는 점 같다. 아이들이 30명 정도 되었고 다양한 학년과 다양한 성격의 아이들이 섞여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이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간간히 보여주는 이화봉사단을 향한 애정과 사랑 덕분에 감동을 받았다. 아이들은 에코백이나 시조, 아이클레이 이런 모든 이화봉사단 관련 활동에 우리의 흔적을 남겨줬다. 이는 우리의 큰 버팀목이 되어줄 만큼 감동을 주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마지막에는 너무나도 아쉽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커진 것 같다.

2016년 여름 이후로 1년 반만에 세 번째 만나는 아이들이었다. 출발하기 전부터, 아니, 이화봉사단을 신청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을 만날 시간들만 손꼽아 기다렸다. 아이들이 날 기억해 주고 있을까, 지난번에 보았던 아이들이 여전히 있을까.. 설레임과 걱정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를 휩싸았다. 그러나 아이들을 만나는 그 순간 나의 걱정들이 모두 사르르 녹아버렸다. 여전히 아이들은 나를 기억해 주고 있었고, 심지어 처음 보는 아이들까지도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었다. 1년 반 전 말썹꾸러기였던 3,4학년 아이들은 어느새 5,6학년, 의젓한 형, 누나들이 되어있었다. 그리고 형, 누나를 따라왔던 아기 같던 유치원생 아이들은 벌써 1,2학년이 되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아는 아이들이 되어 있었다. 그만큼 나에게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처음 아이들을 만났을 때 팀에서 막내던 내가 어느새 왕언니가 되어 곧 대학생활의 마지막 1년을 보내게 되었다. 그만큼 이번 이화봉사단 활동이 어찌면 나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좀 더 아이들과 가깝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려고 하였다. 물론 5일 동안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행복했고 즐거웠고 힘이 났다. 이것이 내가 이곳에 세 번째 오게 된 이유였다. 이제는 내가 그 아이들의 삶 속에서 잠깐 스쳐가는 인연이 아닌 어디선가 항상 아이들을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응원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이들이 느껴주었으면 좋겠다.

곽*선

1학기에 처음 이화봉사단에 다녀온 경험이 나에게 터닝 포인트였다. 너무 좋았고 아름다웠던 기억이었기에 2학기에 이화봉사단을 신청했다. 이번에 간 논산 희망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은 너무나 밝고 순수하고 천사 같은 아이들이었다. 처음 들어갔을 때, 센터의 직원분이 지난여름에 이화봉사단과 활동한 동영상을 틀어주고 아이들은 그 동영상의 bgm을 따라 부르며 그때의 추억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장면을 보고 '아, 이 아이들에게 이화봉사단과의 추억이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구나. 이번에도 잘해야겠다.'싶었다. 우리 팀의 프로그램 대부분이 만들기였기 때문에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자주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친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만들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어려운 부분은 대신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에 대하여 더 알 수 있었다. 아이들 역시 자신을 도와주고 늘 곁에서 지켜보는 선생님들에게 점차 익숙해져가는 것 같았다 저번 활동 때 고학년 아이들이 저학년 아이들만 도와준다고 장난처럼 아기들만 예뻐하는 것이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계속 뇌리에 남아있었기에 고학년 아이들을 나이가 많다고 내버려두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 연령대가 워낙 다양하고 우리는 다소 눈높이를 낮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학년 아이들이 가끔 흥미를 잃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같이 참여하도록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노력하며 모든 아이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다. 아이들과 지내면서 나의 진로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의 전공은 아이들과 관련이 없는 전공이지만, 아이들과 지낼 수 있는 진로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보았다. 대학에 입학하고 약 1년의 기간 중에서 여름, 겨울의 이화봉사단 활동은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기 때문이다. 또한 희망지역아동센터에 다시 한 번 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날 아이들은 여름에 다시 올거냐고 계속 물어봤다. 아이들은 우리가 떠나는 것에 너무 슬퍼하며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나누어주었다. 우리의 전화번호를 주지 않는 것이 철칙이기에 자신들의 전화번호를 주고 봉사자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다. 울면서 쪽지를 주던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다. 논산을 떠난 지금도 아이들이 보고 싶다. 이번 여름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스스로에게 기약한다.

조*영

이번이 첫 봉사활동이었는데 처음이다 보니 서툰 점도 많고 아이들이 어려서 힘 든 점도 많았지만 돌이켜 보면 너무 뜻깊었고 의미 있었던 것 같다. 아이들도 그렇고 센터 선생님들도 너무 잘 챙겨주신 덕에 5일 동안 힘든 점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수업시간 내내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조용히 하게끔 했던 것이었다. 역사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흥미가 없었을 뿐더러 만들기 위주의 수업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소란스럽고 정신이 없었다. 따라서 약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수업을 잘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6명의 이화봉사단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점이 가장 힘이 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우리를 찾고, 좋아해주는 것이 보이니까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다. 특히 에코백을 디자인하거나 아이클레이로 작품을 만들 때 항상 아이들은 '이화봉사단 사랑해요'와 같은 문구를 넣어주었는데 그 사소한 점이 감동적이었다. 또한 마지막 날에 몇몇 아이들이 따로 써 준 편지나 작은 선물은 마음을 뭉클하게 했었다. 심지어 몇몇 애들은 우리가 고속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차를 타고 갔는데 그 차를 쫓아서 정류장까지 달려왔었다. 센터 선생님들 말로는 우리가 가고 나면 한동안 아이들이 이화봉사단 얘기를 하고 많이 그리워한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고 행복한 일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거기서 오는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이화봉사단을 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봉사의 참된 의미를 배우고 가는 것 같다.

1월 8일~12일, 논산 희망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활동은 이번으로 두 번째였기에 가기 전 조금 자신이 있었으나 여름에 갔던 곳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에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마음도 컸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일 정도로 어린 아이들이었고, 인원이 30명 정도 되다보니 아이들을 수업에 집중하게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라 개별적으로 다 신경써주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수업 진행에서의 어려움은 퀴즈 정답을 맞히면 스티커(사인)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바꿔 해결할 수 있었고,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고 기다려주는 아이들 덕분에 모두와 금방 친해지고, 모두에게 공평히 친근하게 대해줄 수 있었습니다. 풀, 싸인펜 같은 도구가 부족하여 만들기 활동 중 아이들끼리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고 어린 친구들도 서로 양보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투덜대도 만들기 활동에 열심히 참여·완성하여 자랑하고, 다음날까지도 들고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뿌듯해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진행했던 역사 프로그램 중 몇몇 활동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활동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에코백 만들기, 시조, 전통놀이 등은 쉽게 진행할 수 있었으나, 병풍 만들기과 스크랩북은 초등학교 고학년들에게도 높은 난이도라 봉사원들의 도움에도 중간에 포기하여 미완성 상태로 가져가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우는 아이들이 있어 힘들기도 했으나, 그럴 때는 센터의 복지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천진난만하게 놀고 선생님들한테도 귀여운 장난을 치는 아이들 덕분에 5일 간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현

2017년도 여름에도 희망지역아동센터로 교육봉사를 갔었는데 다시 만나러 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반 년 만에 본 아이들은 꽤나 성숙해진 아이들도 있었고 새로운 아이들도 있었다. 한 번 와봤다고 더 친근하게 대해주고 나 역시도 아이들을 관리하는 데에 더 쉬운 부분이 있었다.

두 번째 만남이었지만 이번에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 아이들은 끝을 아쉬워했다. 센터장님으로부터 아이들이 이화봉사단이 오기만을 기다린다는 말을 듣고 단순히 아이들이 좋아서라기 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말 한 마디 한 마디 신중히 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여자 아이들 중 대개 이화여대에 꼭 오고 싶다고 할 때 뿌듯하기도 했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벅들과 정말 가까워 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